

세상에 없던 새로운 공부법

EBS 중학



국어 1





소나기

황순원



지문 연구

- 해제: 이 작품은 평화로운 시골을 배경으로, 시골 소년과 도시 소녀의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서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단편 소설이다.
- 주제: 소년과 소녀의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

Ⅱ 내용 연구

'징검다리'의 의미

한 사람밖에는 건널 수 없는 다리

1

소년과 소녀의 만남이 필연적 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소재

▮ 구절 풀이

-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 소녀가 서 울에서 온 아이라는 것을 직 접적으로 알려 주고 있는 표 현이다.
-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소녀가 움직이는 것을 갈꽃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 소년은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조약돌을 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넣는 행동을 통해 소년이 소녀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낱말 풀이

- * 초시: 예전에, 한문을 좀 아는 유식한 양반을 높여 이르던 말.
- * **잠그고**: 물속에 물체를 넣거나 가라앉게 하고.
- * 징검다리: 개울이나 물이 괸 곳에 돌이나 흙더미를 드문드 문 놓아 만든 다리.
- * 요행: 뜻밖에 얻는 행운.
- * 허탕: 아무 소득이 없는 일.
- * 조약돌: 작고 둥글둥글한 돌.

(가) 소년은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u>윤</u> *초시네 <u>중손녀(曾孫女)</u>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 원 첫 첫 보(소녀) 한 - 중 초시네 중손녀 울에다 손을 *참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 소년은 개울둑에 앉아 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요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 주었다.

	_11	1	പ്	
→	ヨルト	<u> ふ</u> 15	O	
	14	ユー		

(나)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 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린 <u>팔과</u>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속을 빤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 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소녀는 소년이 개울둑에 앉아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 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대로 재미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 비킬 모양이다.
□ 에 앉아 계속 물장난을 치는 소녀 등 지역보고 있음.

(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홱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적극적이지 못한 소년에 대한 핀간 조약돜이 날아왔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단발머리를 나폴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잇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 소녀가 소년에게 말을/를 던짐.

(라) 이제 저쯤 갈밭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는다. 발돋움을 했다. 그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저쪽 갈밭머리에서 갈꽃이 한 옴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소년은 이 갈꽃이 아주 뵈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물기가 걷혀 있었다. *소년은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관심(2)					
▲ 소1	크가 던진	조약독육	주머니에	집어넣는	

B 따라 엉덩다리, 조약돌, 소년

0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은 한적한 시골이다.
- ② 시간적 배경은 청량한 가을날이다.
- ③ 향토적이면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④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⑤ 모든 문장을 현재형으로 서술하여 생생한 느낌을 준다.

音显

이 글의 소녀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영수: 소녀는 시골 생활에 매우 익숙한 것으로 보여.
- ② 주민: 소녀가 개울물에 와서 노는 것은 서울이 그립기 때 무이야
- ③ 재원: 소녀는 자신이 윤 초시네 증손녀로 알려지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
- ④ 민지: 소녀는 소년이 기다리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징검 다리에서 비키지 않는 것 같아.
- ⑤ 소영: 분홍 스웨터나 흰 목덜미와 팔을 통해 소녀가 도시 아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어

03 (가)와 (나)에 나타난 소년의 행동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 ① 소녀의 행동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 ② 여유로운 마음으로 소녀를 놀리고 있다.
- ③ 상대방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
- ④ 소녀의 행동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 ⑤ 상대방이 호감을 보이자 좋아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

| 서술형 (

○4 〈보기〉는 이 소설에서 '조약돌'을 통해 드러난 인물의 심리를 도식화한 것이다. ②와 ④에 적절한 내용을 각각 쓰시오.



05 ¬으로 짐작<mark>할 수 있는</mark> 소년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활달하다.
- ② 개구지다.
- ③ 내성적이다.

- ④ 적극적이다.
- ⑤ 무기력하다

100점 특강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개울에 징검다리가 놓여 있는 시골로, 평화롭고 한적한 느낌을 준다. 또한 시간적 배경은 갈꽃이 만발하고 청량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을 무렵으로, 맑고 깨끗한 느낌을 준다. 이와 같은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은 소설의 향토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한편 전체적인 느낌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유지하는 효과를 준다.

공간적 배경	평화롭고 한적한 시골	
시간적 배경	청량하고 맑은 기을 무렵	

- 소설의 향토적인 분위기를 형성함.
- 소설의 느낌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유지함.

♥소년과 소녀의 인물 분석

소녀	소년
서울에서 내려온 '윤 초시네 손녀'	시골 소년
소년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징검다리를 비키지 않음.	소녀가 비켜 줄 때까지 개울둑에서 기다림.
아무 말도 없는 소년에게 조약돌을 던짐.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말없이 주머니에 넣음.
↓	.
적극적이고 당돌한 성격임.	내성적이고 순박한 성격임.

EBS

3 소나기

▮ 내용 연구

'꽃'에 대한 소녀의 태도

소녀

소년이 꺾어 온 꽃을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함.

1

꽃을 소중하게 생각함.

▮ 구적 품이

- 참. 먹장구름 한 장이 ~ 보랏 빛으로 변했다.: 곧 소나기가 올 것임을 알려 주면서 위기 감을 조성하는 표현이다.
- 밖을 내다보던 ~ 수수밭 쪽으로 달려간다.: 소년이 소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함을 보여 준다. 시골 생활에 익숙한 소년은 소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망그러졌다.: 소녀의 불행한 미래(죽음)를 암시한다.

▮ 낱말 풀이

- * 양산: 주로, 여자들이 볕을 가 리기 위하여 쓰는 우산 모양 의 큰 물건.
- * 먹장구름: 먹빛같이 시꺼먼 구름.
- * 듣는: 액체가 방울져 떨어지는.
- * 그을: 비를 잠시 피하여 그치 기를 기다릴.
- * 잠방이: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게 만든 짧은 남자 홑바지.
- * **쪽**빛: 남색.

(가) 산이 가까워졌다. / <u>단풍잎</u>이 눈에 따가웠다. / "야아!"

"이게 들국화. 이게 싸리꽃. 이게 도라지꽃.……"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①난 보랏빛이 좋아!…… 그런데 이 *양산같이 생긴 노란 포켓의 무기 - 유울하고 불킨함. 꽃이 뭐지?" / "마타리꽃"

소녀는 마타리꽃을 양산 받듯이 해 본다. 약간 상기된 얼굴에 살포시 보조개를 떠올리며.

다시 소년은 꽃 한 옴큼을 꺾어 왔다. <u>싱싱한 꽃가지만 골라 소녀에게 건넨다.</u>

그러자 소녀는

"하나도 버리지 마라."

		을/를	꺾어	소녀에게	주는	소년
--	--	-----	----	------	----	----

(나) [*참, *먹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바람이 우수 「고 반장장이 보석됨. 수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삽시간에 주위가 ①보랏빛으로 변했다.」

산을 내려오는데, 떡갈나무 잎에서 빗방울 *듣는 소리가 난다. 굵은 빗방울이었다. 목덜미가 선 뜩선뜩했다. 그러자 <u>대번에 눈앞을 가로막는 빗줄기</u>. ▶ 갑자기 내리기 시작하는

(다) 소녀가 들어선 곳도 비가 새기 시작했다. 더 거기서 비를 *그을 수 없었다.

*밖을 내다보던 소년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수수밭 쪽으로 달려간다. 세워 놓은 수숫단 속을 비집어 보더니, 옆의 수숫단을 날라다 덧세운다. 다시 속을 비집어 본다. 그러고는 이쪽을 향해 손짓을 한다.

수숫단 속은 비는 안 새었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됐다. <u>앞에 나앉은 소년은 그냥 비를 맞아야</u>만 했다. 그런 소년의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망그러졌다. ⓒ그러나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내음새가 확 코에 끼얹어졌다. 그러나고개를 돌 맛이 있다지 않는 것보다 소년이 비를 맛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적이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 _____ 속에서 함께 비를 피하는 소년과 소녀

(라) 소란하던 수숫잎 소리가 뚝 그쳤다. 밖이 멀개졌다.

수숫단 속을 벗어 나왔다. 멀지 않은 앞쪽에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붓고 있었다. 도랑 있는 곳까지와 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빛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소년이 등을 돌려 댔다. 소녀가 순순히 업히었다. 걷어 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소녀의 생겨년화 - 적극적으로 변함. 소녀는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다.

▶ 소녀를 업고 | 을/를 건너는 소년

동교, 남솟수, 1<(줄반, 똦, 📳

EBS

06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배경을 묘사하면서 독자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독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순차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 ④ 주로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사건을 전달 하고 있다.
- ⑤ 자연 현상이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이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全

다음의 관점에서 이 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설에서 배경은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이다. 또한 작가는 배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소재를 통해 주제를 부각시키거나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소설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 ① '단풍잎'은 이 소설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다.
- ② '먹장구름'은 이어질 내용을 암시한다
- ③ 좁은 '수숫단 속'은 소년과 소녀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다
- ④ 물이 불은 '도랑'은 소년과 소녀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 내다
- ⑤ '가을 하늘'은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모습을 더욱 돋보이 게 한다.

08 이 글에서 소녀를 대하는 소년의 태도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녀를 원망하고 있다.
- ② 소녀를 보호하려고 한다.
- ③ 소녀와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
- ④ 소녀의 행동을 부담스러워한다.
- ⑤ 소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서술형

①9 ⓒ을 통해 이 소설에서 '보랏빛'이 주는 느낌을 쓰고, 이를 바탕으로 ③의 역할을 추측하여 서술하시오.

(1) '보랏빛'의 느낌	
(2) ①의 역할	

10 〈보기〉는 '꽃'에 대한 소녀의 태도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L	보기 🕽						_
	(가)	꽃을	하나도 버	리지	말라고 함.		
	(다)	꽃묶	음이 망그	러진	것을 상관없다.	고 생각함.	
ш								

- ① 처음부터 꽃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 ② 꽃묶음이 망그러진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③ 꽃묶음보다 소년과의 만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 ④ 꽃묶음이 망그러졌지만 꽃은 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⑤ 현재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 꽃묶음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

100점 특강

❸소나기의 역할

이 글에서 소나기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먼저 화창했던 날씨에 갑자기 먹장구름이 몰려오면서 주위가 어두워지는 상황에서는 위기 감이 조성된다. 그리고 소년과 소녀가 좁은 수숫단 속에 함께 있게 되고, 소년이 소녀를 업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소년과 소녀를 더욱 친근하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소나기는 갑자기 쏟아졌다가 금방 그치고 마는 비를 말하는데, 이는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 아름답지만 짧게 끝나 버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다.

♥꽃의 변화와 사건 전개

소년이 꺾어 온 꽃 중 싱싱한 꽃가지만 고르자 소녀는 '하나도 버리지 마라.'라고 말하며 꽃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이는 병약한 소녀가 자신과 꽃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좁은 수숫단 안에 피해 있으면서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은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 하지만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꽃이 일그러지는 것은 소녀의 불행한 미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소녀는 소년과 좁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이 꽃의 상태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3 소나기

Ⅱ 내용 연구

'개울물'을 통한 심리 표현

개울물이 날로 여물어 갔다. → 시간이 경과함.

1

소녀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이 깊어짐.

▮ 구절 풀이

- "그럼 큰 놈으로 하나 가져가지, 저 얼룩 수탉으로……..": 소녀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소년의 순수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고……...: 소녀의 유언으로, 소년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 낱말 풀이

- * **망태기**: 물건을 담아 들거나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그릇.
- * 열쩍어: 조금 부끄러워져. '열 없어'의 사투리.
- * 악상: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거나 대가 끊긴 초상.
- * **잔망스럽지:** 나이에 비해서 깜 찍하고 엉뚱하지.

- (가) 이튿날, 소년이 학교에서 돌아오니, 아버지가 나들이옷으로 갈아입고 닭 한 마리를 안고 있었다.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다.
 - 그 말에는 대꾸도 없이, 아버지는 안고 있는 닭의 무게를 겨냥해 보면서,
 - "이만하면 될까?"
 - 어머니가 *망태기를 내주며.
 - "벌써 며칠째 '걀걀' 하고 알 날 자리를 보던데요. 크진 않아도 살은 쪘을 거예요."
 - 소년이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어디 가시느냐고 물어보았다.
 - "저 서당골 윤 초시 댁에 가신다. 제사상에라도 놓으시라고……."
 - "그럼 저 큰 놈으로 하나 가져가지, 저 얼룩 수탉으로……"
 - 이 말에. 아버지는 허허 웃고 나서.
 - "인마, 그래도 이게 실속이 있다."

소년은 공연히 *열쩍어, 책보를 집어던지고는 외양간으로 가, 쇠잔등을 한번 철썩 갈겼다. 쇠파아버지에게 소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워하는 소년 리라도 잡는 체. ▶ 소녀네 집에 말/를 가져가기를 바라는 소년

(나) ③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

소년은 갈림길에서 <u>아래쪽으로 가 보았다. 갈밭머리에서 바라보는 서당골 마을은 쪽빛 하늘 아래 소녀에 집이 있는 쪽</u> 한결 가까워 보였다.

어른들의 말이, <u>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u>. 거기 가서는 조그마한 가겟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u>주머니 속 호두알을</u>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꽃을 휘어 꺾고 있 ^{소녀에게 주기 위해 용기를 내어 딱 호두} 었다.

그날 밤, 소년은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내일 소녀네가 이사하는 걸 가 보나 어쩌 나,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 소녀와의 □ 을/를 안타까워하는 소년

"허, 참, 세상일도……"

마을 갔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다) 그러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가 하는데.

"윤 초시 댁도 말이 아니야. <u>그 많던 전답(田畓)을 다 팔아 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일.</u> 손에 넘기더니,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남폿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 "증손(曾孫)이라곤 계집애 그 애 하나뿐이었지요?"
- "그렇지, 사내애 둘 있던 건 어려서 잃어버리고……."
- "어쩌면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 봤다더군. 지금 같아선 <u>윤</u> 초시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앤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조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u>자기 입던 옷을</u>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고……." ▶ 소녀의 죽음과

SA, 벨0 ,켡수 둘벌 📳

音記

이 글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① 지환: 이 소설은 시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향토적 분위 기가 느껴져
- ② 찬영: 소년과 소녀는 어리지만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을 했다고 생각해
- ③ 재형: 소년이 과거를 회상하는 구조 때문에 소설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져
- ④ 동건: 이 소설은 깔끔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서정적 분위 기를 조성하고 있어.
- ⑤ 건영: 이 소설에는 인물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는 소재가 쓰여서 더 애틋하게 느껴졌어.

12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 ① 소녀는 할아버지인 윤 초시의 죽음으로 혼자가 되었다.
- ② 소년은 소녀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 ③ 소년은 소녀에게서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④ 소년은 아버지가 소녀네 집 제사에 더 좋은 것을 가져가 기를 바랐다
- ⑤ 소년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외양간에서 쇠잔등을 때리는 것으로 표현했다.

13 다음 중 소녀를 만나고 싶어 하는 소년의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는?

- ① 옷
- ② 책보
- ③ 망태기

- ④ 호두알
- ⑤ 남폿불

14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 준다.
- ② 소녀의 죽음이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③ 소년의 안타까운 심정이 직접 드러나 있다.
- ④ 생략법을 사용하여 여운과 감동을 느끼게 한다.
- ⑤ 소녀의 유언을 통해 소년에 대한 소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I 서술형

15 다음은 ③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소년의 심리와 관련하여 적절한 말을 써 넣으시오.

의미 1	개울물의 변화로 시간의 경과를 드러냄.
의미 2	

100점 특강

☞소년과 소녀의 마음

이 글에서 소년과 소녀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소년과 소녀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서로에 대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년은 소녀네 집에 가려는 아버지에게 얼룩 수탉을 가져가라고 말한다. 소년의 눈에는 아버지가 가져가려는 암탉보다는 얼룩 수탉이 더 크고 좋아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소녀에게 더 좋은 것을 가져다주고 싶어 하는 소년의 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소녀가 이사를 간다는 말을 듣고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는 행동이나, 소녀에게 주기 위해 딴 호두알을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며 갈꽃을 휘어 꺾는 행동에서는 소녀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난다. 한편 소녀는 유언으로 자신이 입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는 말을 한다. 그 옷은 소년과 함께 산에 가서 소나기를 만났던 날에 입었던 옷이다. 죽음을 앞둔 소녀는 소년과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그와 같은 유언을 남긴 것이다.

	말이나 행동	소년과 소녀의 마음
	• 소녀네 집에 가는 아버지에게 얼룩 수탉을 가져가라고 말함.	소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음.
소년의 마음	•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감. • 주머니 속의 호두를 만지작거리며 갈꽃을 휘어 꺾음.	소녀를 보고 싶음.
소녀의 마음	• 유언으로 자신이 입던 옷을 그대로 입혀 묻어 달라고 함.	소년과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음.

EBS

___ 괜찮아

장영희



지문 연구

- 해제: 이 글은 몸이 불편한 글쓴이가 어릴 적에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희망을 얻었던 경험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이야 기한 수필이다. '괜찮아.'라는 말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를 나열하며 글쓴이가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주제: '괜찮아.'라는 말에 담긴 선의와 너그러움

Ⅱ 내용 연구

'나'에 대한 친구들의 행동

- '나'에게 고무줄놀이나 달리 기의 심판을 시킴.
- '나'에게 신발주머니나 책가 방을 맡김.
- 술래잡기를 할 때 '나'에게 어디 숨을지 미리 말해 줌.

1

다리가 불편해 놀이에 참여할 수 없는 '나'에 대한 친구들의 배려

▮ 구절 풀이

- 초등학교 때 ~ 작은 한옥이 었다.: 글쓴이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어머니는 내가 ~ 것을 싫어 하셨다.: '나'가 아이들과 어울 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 목발을 옆에 두고 ~ 지나쳐 갔다.: '나'가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낱말 풀이

- * 고만고만한: 고만한 정도로 여 럿이 다 비슷비슷한.
- * 사방치기: 땅바닥에 여러 공간을 구분해 그려 놓고, 그 안에서 납작한 돌을 한발로 차서다음 공간으로 옮기다가 정해진 공간에 가서는 돌을 공중으로 띄워받아 돌아오는 놀이.
- * 모퉁이: 변두리나 구석진 곳.
- * 박탈감: 무언가를 빼앗겼다고 드는 생각이나 느낌.
- * 리어카: 자전거 뒤에 달거나 사람이 끄는, 바퀴가 둘 달린 작은 수레. '손수레'로 순화함.

(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다. 골목 안에는 *고만고만한 한옥 여섯 채가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한 집에 아이가 보통 네댓은 됐으므로 골목길 안에만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줄잡아 열 명이 넘었다. 학교가 파할 때쯤 되면 골목은 시끌 벅적.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 어린 시절, 아이들의 놀이터였던

(나) *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방과 후 골목길에 아이들이 모일 따쯤이면 어머니는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에 앉히셨다. 아이들이 노는 걸 구경이라도 하라는 뜻이었다.

▶ 골목길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것을 하던 '나'

(다) 딱히 놀이 기구가 없던 그때, 친구들은 대부분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을 하고 놀았지만 나는 공기놀이 외에는 그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골목 안 친구 되어 무슨 나를 위해 꼭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고무줄놀이나 달리기를 하면 내게 심판을 시키거 같이 뛰어놓 수 없는 '나를 배려하는 친구들의 마음 ① 나 신발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겼다. 그뿐인가. 술래잡기를 할 때는 한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 내가 답답해할까 봐 어디에 숨을지 미리 말해 주고 숨는 친구도 있었다.

우리 집은 골목에서 중앙이 아니라 *모퉁이 쪽이었는데 내가 앉아 있는 계단 앞이 늘 친구들의 놀 같이 뛰어놓수 없는 나를 배려하는 친구들의 마음③ 이 무대였다.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난 전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지금 생친구들의 배려 때문에 각하면 내가 소외감을 느낄까 봐 친구들이 배려해 준 것이었다.

▶ '나'가 □을/를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준 친구들

(라) 그 골목길에서의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나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골목을 지나던 깨엿 장수가 있었다. 그 아저씨는 가위를 쩔렁이며,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 있는 나를 흘낏 보고는 그냥 지나쳐 갔다. 그러더니 *리어카를 두고 다시 돌아와 내게 깨엿 두 개를 내밀었다. 순간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 돈 없이 깨엿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 만한 곳이라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깨엿 장수 아저씨의 ' .'(이)라는 말에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나'

B 골목길, 구경, 소외감, 괜찮아

01 이와 같은 글의 일반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식이 비교적 자유롭다.
- ② 허구적 인물이 이야기를 전달한다.
- ③ 삶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드러난다.
- ④ 글쓴이의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
- ⑤ 글쓴이의 경험이나 생각을 고백적으로 서술한다.

02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나'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 ② '나'의 친구들은 '나'와 함께 노는 것을 불편해하였다.
- ③ '나'는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며 외로워했다.
- ④ '나'는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였다.
- ⑤ '나'의 친구들이 신발주머니나 책가방을 맡긴 것은 '나'를 배려한 것이었다.

J 서술형 〈

03 (나), (다)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어머니가 글쓴이를 대문 앞 계단에 앉혀 놓은 궁극적인 이유를 서술하시오.

音显

4 (라)에서 '깨엿 장수 아저씨'가 '나'에게 미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 ② 건강이 안 좋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해 주었다.
- ③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 ④ 세상을 사는 데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 ⑤ 도움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게 해 주었다.

05 〈보기〉는 이 글을 읽은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이 내용의 근거로 볼 수 없는 것은?

◀ 보기 ▶

이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가 어떤 사람인지에 주목했어. 글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글쓴이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

- ① 친구들의 놀이에 심판을 하거나 소지품을 지켰다.
- ② 공기놀이 외에는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 ③ 대문 앞 계단에 앉아 친구들이 노는 것을 구경했다.
- ④ 깨엿 장수 아저씨로부터 깨엿 두 개를 공짜로 얻었다.
- ⑤ 깨엿 장수 아저씨가 지나갈 때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 있었다.

100점 특강

৺'나'의 처지

초등학교 때 '나'는 아이들이 골목길에서 놀 때, 대문 앞 계단에 방석을 깔고 앉아 아이들이 노는 걸 구경만 해야 했다. '나'가 친구들의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공기놀이가 유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놀 때 심판을 하거나 신발주머니, 책가방을 보관하는 일을 하였다. 또한 엿장수 아저씨가 골목길을 지나갈 때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 있었다. 이런 내용을 통해 '나'가 다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대문 앞 계단에 앉아 친구들이 노는 것을 구경만 함.
- 공기놀이 외에는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 없음.
- 친구들의 놀이에 심판을 하거나 소지품을 지킴.
-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 있음.

다리가 불편해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가 없음.

> ™엿 장수 아저씨의 '괜찮아.'라는 말의 의미

깨엿 장수 아저씨가 '나'에게 한 '괜찮아.'라는 말은 '나'에게 '돈을 안 내고 그냥 먹어도 돼.', '다리가 불편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등의 여러 의미로 다가온다. 즉 '괜찮아.'라는 말은 '나'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이었으며,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주는 말이었다.

4 괜찮아

▮ 내용 연구

'괜찮아.'라는 말에 담긴 의미

-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
- 용서의 말
- 격려의 말
- 나눔의 말
- 부축의 말

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 망을 주는 말임.

▮ 구절 풀이

- "그만하면 참 잘했다."라고 ~ 부축의 말, "괜찮아.": '괜찮아.'라는 말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달리 해석되나. 그 다양한 해석들 사이에는 너그러움과 따뜻함.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아, 그래서 ~ 희망의 말이다.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됨을 알려 준다.

| 낱말 풀이

- * 찡해진다: 감동을 받아 가슴 등이 뻐근해지는 느낌이 든다.
- * 부축: 겨드랑이를 붙잡아 걷는 것을 도움.
- * **만만치:** 부담스럽거나 무서울 것이 없어 쉽게 다루거나 대 할 만하지

(가) 오래전 학교 친구를 찾아 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다. 한번은 유명 가수가 나와서 초등학교 유명 가수의 일화 소개 - 배려와 위로의 사례 때 친구를 찾았는데, 함께 축구하던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허리가 36인치일 정도로 뚱뚱한 친구가 있었는데, 뚱뚱해서 잘 뛰지 못한다고 다른 친구들이 축구팀에 끼워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그 가수가 나서서 말했다고 한다.

"괜찮아. 얜 골키퍼를 시키면 우리 함께 놀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친구는 출키퍼를 맡아 함께 축구를 했고, 몇 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 가수의 따뜻한 말과 마음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 어린 시절, 친구를 제 준 유명 가수의 일화

(나)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 팀이 독일에게 졌을 때 관중들은 우리 선수들을 향해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로자 나아 문제를 풀다가 결국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 준다.

①"괜찮아! 괜찮아!" 친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 위로와 의 의미를 지니는 '괜찮아.'라는 말

(다) 「"그만하면 참 잘했다."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감아 주겠다."라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니 넌 절대 외롭지 않다."라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마라."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 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맘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움을 느낏때 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아, 그래서 "괜찮아."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이다.

06 이와 같은 글을 쓸 때의 유의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체험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쓴다.
- ② 경험에서 느낀 감정이 잘 드러나게 표현한다.
- ③ 사건 전개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쓴다.
- ④ 경험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언어로 쓴다
- ⑤ 자신이 보고, 듣고, 겪은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되돌아본다.

67 61 78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유리: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깨달았어.
- ② 세리: 거짓된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알게 되었어.
- ③ 준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 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
- ④ 민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오직 자신의 꾸준한 노력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 ⑤ **동현**: 몸이 불편한데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 려는 글쓴이의 삶의 자세를 본받고 싶어졌어.

08 글쓴이가 (가)의 내용을 인용한 의도로 적절한 것은?

- ① 친구 찾는 방송 프로그램의 유익함을 주장하기 위해
- ②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이 주는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 ③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유명 가수의 정확한 판단력을 설 명하기 위해
- ④ 유명 가수의 친구가 축구 선수로 성공하게 된 계기를 알려 주기 위해
- ⑤ 뚱뚱한 친구를 축구팀에 끼워 주지 않은 친구들의 행동 을 비판하기 위해

9 다음 상황에서 사용된 '괜찮아!'는 어떤 의도가 담긴 말인지 (다)에서 찾아 쓰시오.

진수: 시간이 많이 지났네. 늦어서 미안해. 정호: 괜찮아!

10 ①의 의미와 통하는 속담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 ② 콩 한 쪽도 나눠 먹어라.
- ③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 ④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 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100점 특강

선수필 읽기와 성찰

이 글은 다리가 불편한 글쓴이의 경험과 생각이 잘 드러나는 수필이다. 글쓴이는 어머니와 친구들, 깨엿 장수 아저씨 등의 배려에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일화, 주변에서 관찰한 내용 등을 솔직하고 담담한 말투로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감싸 주며 배려하는 태도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또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이러한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각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고, 선의와 사랑,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세상의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

- 다른 사람의 배려를 받았던 글쓴이의 경험
- 글쓴이가 방송에서 들은 유명 가수의 일화
- 글쓴이가 축구 경기와 골든벨에서 본 장면

1

〈글쓴이의 성찰〉

- 세상은 살 만한 곳이라고 믿게 됨.
- '괜찮아.'라는 말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음을 깨달음

〈독자들의 성찰〉

- 글을 읽으며 글쓴이의 경험이나 생각을 파악함.
- 글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봄.
- 자신의 삶을 반성하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깨 달음을 얻음.



[01~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①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 윤동주, 「새로운 길」

라이 내린다. 봄이라서

ⓑ봄빛처럼 포근한 눈

담장 위에 쌓이는 봄눈 나무 위에 쌓이는 봄눈 마당 위에 쌓이는 봄눈

그리고 마루에서 졸다가 깬 눈을 하고 있는 ①새끼 고양이의 뉴 속에도 내리는 봄눈

감았다 떴다 하는 새끼 고양이의 눈처럼 보드라운

봄 봄 하늘

봄 하늘의 봄눈

- 오규원, 「포근한 봄」

, , , 2

🗗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東山)에 달 오르니 긔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구름 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 한다.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좋고도 그칠 뉘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는 건 바위뿐인가 하노라.

더우면 꽃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솔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다. 구천(九泉)에 뿌리 곧은 줄을 글로 하여 아노라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비었는다. ④ 저렇고 사시(四時)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A] 밤중에 광명(光明)이 너만 한 이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 윤선도 「오우가」

리 ②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윤동주, 「서시」

- ②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 한 잘못이 맷방석만 하게 동산만 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움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잘아지고 굳어지나 보다
 - 미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 신경림, 「동해 바다 – 후포에서」

중요

│ 말하는 이의 태도를 중심으로 (가)~(마)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 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길을 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 ② (나): 담장, 나무, 마당 등에 내리는 봄눈을 바라보면서 봄눈이 주는 따뜻하고 포근한 정서를 즐기고 있다.
- ③ (다): 자연물과 어우러져 사는 삶에 대한 만족을 드러내면서 각 자연물이 지난 덕성을 예찬하고 있다.
- ④ (라):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삶을 살겠다는 지난날의 고백을 후회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
- ⑤ (마):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자신에게는 너그러운 현재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고 있다.

02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수미상관의 방법을 사용해 음악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 ② (나)에서는 시행을 점층적으로 배열하여 시각적 효과를 주고 있다.
- ③ (다)는 일정한 음보 수를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정형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 ④ (라)는 2연으로 구성되었지만, 의미상으로 '과거-현재-미래' 순서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⑤ (마)는 1연과 2연이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03 (가)의 1연과 (나)의 2연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 방법을 (마)에서 찾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 ②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 ③ 돌처럼 잘아지고 굳어지나 보다
- ④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 ⑤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I 서술형

○4 〈보기〉의 학생이 선생님의 질문에 답할 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보기 ▶-

선생님: 시의 표현 방법 중 직유법은 두 대상 사이의 유사점을 바탕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새털처럼 가벼운 마음'이라는 표현에서 '새털'과 '마음'은 '가볍다'라는 공통점이 있어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에서 '봄눈'은 비유하고 있는 '고양이의 눈'과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요?

학생:

◀ 조건 ▶

- 학생이 대답하는 말투로 쓸 것.
- 15자 이내로 쓸 것

05 (다)에서 시의 말하는 이가 생각하는 다섯 벗의 덕목을 갖춘 사람을 잘못 연결한 것은?

- ① 물: 청렴하면서 끊임없이 학문에 힘쓰는 학자
- ② 바위: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지조를 가진 선비
- ③ 소나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마음이 변하지 않는 충신
- ④ 대나무: 지조가 있으며 재물에 욕심이 없는 사람
- ⑤ 달: 어려울 때마다 좋은 말로 충고를 해 주는 친구

| 서술형|

(마)를 말하는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⑦~ ⑤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각각 넣으시오.

말하는 이가 본 동해 바다의 모습	말하는 이가 성찰한 내용
@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지고 싶다.
깊고 짙푸른 바다	(
(F)	스스로를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고 싶다.

07 [A]에 쓰인 시어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 ① 작은 것
- ② 만물
- ③ 광명

- ④ 너
- ⑤ 내 벗



08 〈보기〉를 참고할 때, (라)에 사용된 소재 중 (가)의 [비]와 상징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 보기 ▶──

(가)의 말하는 이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 내고 결국은 평화로운 세상으로 가겠다는 소망을 상징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즉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가고자 하는 '숲'이나 '마을'은 말하는 이가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다.

① 하늘

② 잎새

③ 바람

④ 별

⑤ 길

0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말하는 이가 길을 가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존재를 나열하고 있다.
- ② ①: 마루에 앉아 있는 새끼 고양이의 눈에 봄눈이 비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③ ©: 바위의 덕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유사한 성격의 꽃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②: 말하는 이가 소망하는 삶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고백 하고 있다.
- ⑤ ①: '동해 바다'는 말하는 이가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매 개체로 사용되었다.

10 @~@의 표현 방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영탄법을 사용하여 말하는 이가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 ② ⑤: 은유법을 사용하여 포근한 봄눈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설의법을 사용하여 솔에 대한 의문을 직접 표현하고 있다.
- ④ ⓓ: 의인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⑤ (e): 직유법을 사용하여 친구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나도 이젠 4학년 됐잖아요. 남의 책 보퉁이만 메고 다니는 거 부끄럽다니까요?"

"글쎄, 그거 늘 하는 소리제. 지발 좀 참아라. 없는 기 원수지. 그놈 애들이 왜 그렇게 못살게 하나?"

어머니도 밥숟갈을 들 생각을 않으시고 한숨을 쉬시더니 또 말을 이었습니다.

"야야, 너 아부지도 올해나 남의 일을 하면 그만두실 끼다. 한 해만 참아라. 부디 한 해만……"

용이는 아버지가 남의 집 ⓐ <u>머슴살이</u>를 올해만 하면 그 만두신다는 말에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 모진 겨울을 이겨 낸 ⓑ <u>보리</u>들이 새파랗게 살아난 밭 둑길을 걸어가면서 아이들은 모두 어깨를 우쭐거리며 '향 토 예비군의 노래'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산기슭 을 돌아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모두 용이 발 밑에 책보를 던졌습니다. 3년 동안 용이 어깨에 매달려 재 를 넘어가고 넘어오던 책보들입니다. 용이 아버지가 같은 동네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모두 용 이까지 남의 짐을 날라 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참 멋지다!'

날개를 쫙 펴고 꽁지를 쭉 뻗고 아침 햇빛에 눈부신 모습으로 산을 넘어가는 ⓒ 꿩을 쳐다보는 용이의 온몸에 갑자기 어떤 힘이 마구 솟구쳤습니다. 용이는 그 자리에서 한 번 훌쩍 뛰어올라 보았습니다. 하늘에라도 날아오를 듯합니다. 용이는 발에 채이는 ⑥ 책보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늘 위로 던졌습니다.

형! 공중에서 몇 바퀴 돌던 책보가 '퍽' 소리를 내면서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 용이는 두 번째 책보를 집어던졌습니다.

라 아이들의 발과 주먹이 용이를 향해 덮쳐 왔을 때, 용이는 번개같이 거기를 빠져 나와 몇 걸음 발을 옮기더니, 발밑에 있는 돌을 두 손으로 한 개씩 거머쥐고는 거기 있는 커다란 바윗돌 위에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그 몸놀림이 어찌나 재빠른지, 아이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용이와는 아주 다른 딴 아이였습니다.

"자, 덤빌람 덤벼! 누구든지 오는 놈은 이 돌로 박살낼까다!"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을 때, 뒤에 서 한 아이가.

"난, 내 책보 가질러 갈란다." 하고 달려갔습니다.

❶ 句"난 이젠 못난 놈 아니야!"

그러고는 다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⑥순이를 데리고 오자. 순이를 놀리는 놈은 어떤 놈이고 용서 안 할 끼다."

용이는 돌아서서, 햇빛이 눈부신 내리받잇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제는 단숨에 학교까지 뛰어갈 듯합니다. 하늘에는 하얀 구름 한 송이가 날고 있습니다. 용이는 훌쩍 한 번뛰더니 마구 두 팔을 내저으면서 내리달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마리의 꿩이 소리치면서 날아오르는 모습과도같았습니다.

1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회상을 통해 주요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 ② 도시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세대 간의 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 ③ 인물들이 사용하는 사투리로 향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열하여 제 시하고 있다
- ⑤ 작품 속의 인물이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점을 독자들에 게 전달하고 있다.

音显

2 (보기)는 이 글을 읽고 난 뒤에 학생들끼리 나눈 대화이다. 적절한 발언을 한 학생을 모두 모은 것은?

◀ 보기 ▶

- 민수: 아이들은 용이 아버지가 머슴살이를 한다는 이유로 용이를 무시하고 있었어.
- 윤숙: 지금까지 용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제대로 대들지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나 봐.
- 준철: 아이들은 용이를 혼내 주는 것보다 책보를 가지러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나 봐.
- 수지: 용이가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가방이 없어 서 보퉁이를 메고 가는 게 부끄러워서야.
- ① 민수, 윤숙
- ② 유숙, 준철
- ③ 준철, 수지
- ④ 민수, 윤숙, 준철
- ⑤ 윤숙, 준철, 수지

13 ③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이제는 다른 아이들이 내 책보를 들고 다닐 거야.
- ②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야.
- ③ 나도 이제 친한 친구들이 많이 생겼으니 혼자 다니지 않 아도 돼.
- ④ 아버지가 머슴살이를 끝낼 테니 나는 이제 머슴의 아들이 아니야.
- ⑤ 이제는 학교에 다니지 않을 것이니 아이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l **서술형**

14 ⓒ을 통해 비유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②: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② ⓑ: 계절적 배경을 알려 주면서 현재 용이의 심리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 ③ ⓒ: 용이가 변하는 계기가 되는 소재로, 자유로운 존재이다.
- ④ ⓓ: 지금까지 용이를 구속하고 있었던 소재로, 용이는 이를 벗어남으로써 홀가분해진다.
- ⑤ ⑥: 지금까지 용이와 비슷한 처지였지만, 이제부터 용이 가 도와주겠다고 생각한 인물이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세월이 흐르고 흘러 길동이 열한 살이 되었다. 비범한 아이인지라 누구 하나 길동을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비록 천비의 몸을 빌려 난 자식이긴 하지만, 길동의 재주를 눈여겨본 대감 역시 길동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였다.

그러나 길동의 가슴에는 늘 원한이 맺혀 있었다. 출생이 천한 탓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천한 신분을 한탄 하고 또 한탄하였다.

①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공자, 맹자의 학문을 익힌 뒤에,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며,



대장인을 허리춤에 차고, 단(壇) 위에 높이 앉아 수많은 군사를 마음대로 지휘하며, 남쪽으로 초(楚)나라를 치고, 북쪽으로 중원(中原)을 평정하며, 서쪽으로 촉(燭)나라를 쳐 업적을 쌓은 후에, 얼굴을 기린각에 그려 빛내고 이름을 후세에 전함이 대장부의 떳떳한 일일 것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 하였는데 이는 나를 두고 말함인가?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는데, 나만 홀로 그리하지 못하는구나. 내 인생은 어찌하여 이리도 기박한가?"

길동이 칼을 던지고 엎드려 대답하였다.

"소인이 대감의 정기를 받고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으니 이만한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늘 서러운 것은 아버 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 는 신세이옵니다. 하인들까지 모두 천하게 보며, 친지와 친구조차도 아무개의 천생이라고 이릅니다.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길동은 대성통곡하였다. 대감은 속으로는 길동이 불쌍했지만 짐짓 꾸짖어 말하였다. 만일 그 마음을 드러내서 위로하면 오히려 버릇이 없어질까 염려하였던 것이다.

② 길동이 뜰아래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본 대감이 물었다. "밤이 이미 깊었는데 너는 무슨 까닭으로 자지 않고 이 러고 있느냐?"

길동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다.

"집안에 흉한 변고가 있기에 목숨을 구하고자 집을 나가 면서 대감께 하직 인사를 올리러 왔사옵니다."

□ "내가 너의 품은 한을 짐작하겠구나. 오늘부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불러도 좋다. 다만네가 천지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더라도, 죄를 지어 아버지와 형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만은 삼가거라. 또한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부디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노라. 여러 말 하지는 않겠다. 신중하고 겸손하게 생각하도록 하라."

대감의 말을 다 들은 길동은 아버지를 향해 크게 절을 하였다.

"아버님께서 오늘 해묵은 소원을 풀어 주시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황공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가절히 바라옵건대 만수무강하옵소서."

– 허균, 「홍길동전」

16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① 서자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함부로 부르지 못하였다.
- ② 양반들이 부인 외에도 여자 종을 통해 자식을 낳는 경우가 있었다.
- ③ 공을 세워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이 대장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 ④ 자식들이 집을 떠나 사방을 돌아다니는 것은 부모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 ⑤ 양반의 자식이라도 천비의 몸에서 태어나면 하인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보기 ▶

소설은 다양한 갈등에 의해 내용이 전개된다. 그중 한 인물의 마음속에 두 가지 이상의 대립되는 생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내적 갈등'이라 하고, 한 인물과 그 인물을 둘러싼 외부 요인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외적 갈등'이라 한다. 외적 갈등에는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인물과 사회 사이의 갈등, 인물과 운명 사이의 갈등 등이 있다.

- ① (가)에서 '천한 신분'은 길동의 내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
- ② (나)에서 길동이 호부호형을 못해 한탄하는 것은 인물과 사회 사이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 ③ (다)에서 길동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을 찾을 수 있다.
- ④ (라)에서 늦은 밤에 길동이 눈물을 흘리며 엎드린 것은 인물과 자연 사이의 갈등 때문이다.
- ⑤ (마)에서 아버지의 위로는 길동과 아버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I 서술형 <

- 18 (다)와 (마)에서 길동이 대감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를 쓰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쓰시오.
- (1) 호칭의 변화:
- (2) 원인: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② 학창 시절에는 유별나게도 학년이 바뀌고 반이 바뀌어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신학기가 싫었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던 친구는 거의 언제나 다른 반으로 가 버렸고, 한 반이 되지 않기를 빌고 빌었던 친구는 어김없이 한 반으로 편성되곤 하는 불행 아닌 불행 앞에서 얼마나 많이 속상해했는지 모른다.
- □ 그러나 역시 시간이 흐르면 신학기 또한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별과 탐색, 그리고 그 지독 한 소외감에 시달리는 쓸쓸한 나날이 잊지도 않고 이어지 는 것이었다.

이제는 반이 나뉘고 새로운 급우들한테서 낯섦을 실컷 맛봐야 하는 신학기 따위는 영영 내 곁에서 사라졌다. 그 대신 사랑하고 믿어 주는 것보다 시기하고 미워하며, 또는 빼앗고 속이는 일이 더 많은 황폐한 세상살이에 낯가림하 며 사는 나날 속으로 내던져지고 말았다.

□ □ 망망대해를 헤매는 것처럼 힘든 □ 인생의 항해는 신학기 잠시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일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없을 만큼 두려움 가득한 일이다. 삶은 고난투성이고 끝없는 인내를 요구하기만 하는데, 홀로 헤치는 □ 파도는 높고거칠기만 한 것이다.

바로 이때에 영혼을 함께 나눌 친구가 절실히 필요해진다. 인생이란 험난한 항해를 같이 겪고 있다는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친구, 혹은 내 삶의 따뜻한 동반자라는 느낌이전해져 오는 친구와 같이 있는 시간에는 이 세상도 한번 살아 볼 만하다는 용기가 솟는다.

② 누군가는 말했다. 친구 없이 사는 일만큼 무서운 사막은 없다고, 또 누군가는 말했다. 친구 없이 사는 것은 증인 없이 사라지는 일이라고.

그 말들을 새기고 있으면 불현듯 마음이 찡해 온다. 나는 지금 무서운 ②사막을 홀로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내 삶의 의미를 설명해 줄 단 한 사람의 증인도 없이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① 하지만 우정은 상호 간의 교류이다. 일방적인 행위가 결코 아니다. 말하자면 내가 먼저 쌓아야 할 ②탑이고 내가 받을 경작해서 맺어야 할 열매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을 제대로 쌓는 사람, 혹은 빛깔 곱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참 드물다. 친구는 많지만 진정으로 벗이라 부를 만한 이는 몇이나 되는지, 그것만이라도 한 번쯤 되새겨 보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 우리한테 참다운 벗이

없다는 말은 곧 우리가 누군가에게 참다운 벗이 되어 주지 않았다는 말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 양귀자, 「사막을 같이 가는 벗」

19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의 경험과 생각이 직접 드러난다.
- ② 세상살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 ③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주제를 뒷받침한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부각한다.
- ⑤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音요

20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나'는 학창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 ② '나'는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성격이다.
- ③ '나'는 친구가 삶에 용기를 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 ④ '나'는 바다를 항해한 경험에서 깨달음을 얻고 있다.
- ⑤ '나'는 주변의 모든 친구가 진정한 벗이라고 생각한다.

2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삶
- ② ①: 흥미롭고 신기한 세상살이
- ③ ②: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 ④ ②: 친구가 없는 고독한 삶
- ⑤ @: 참된 우정

J M술형

22 (마)에서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건 Ⅰ

- 청유형의 문장으로 쓸 것.
- 20자 이내로 쓸 것.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7 딱히 놀이 기구가 없던 그때, 친구들은 대부분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을 하고 놀았지만나는 공기놀이 외에는 그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골목 안 친구들은 나를 위해 꼭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①고무줄놀이나 달리기를 하면 내게 심판을 시키거나 신발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겼다. 그뿐인가. 술래잡기를 할 때는 한곳에 앉아 있는 내가 답답할까 봐 어디에 숨을지 미리 말해 주고 숨는 친구도 있었다.
- ① 그 골목길에서의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나는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골목을 지나던 깨엿 장수가 있었다. 그 아저씨는 가위를 쩔렁이며,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 있는 나를 흘낏 보고는 그냥 지나쳐 갔다. 그러더니 리어카를 두고 다시 내게 돌아와 내게 깨엿 두 개를 내밀었다. 순간 그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 ①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 돈 없이 깨엿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②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 진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 팀이 독 일에 졌을 때 관중들은 우리 선수들을 향해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혼자 남아 문제를 풀다가 결국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 준다.

- ①"괜찮아! 괜찮아!"
- ①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맘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아, 그래서 "괜찮아."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이다. - 장영희,「괜찮아.

23 이와 같은 글을 읽는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가 만들어 낸 서술자의 역할을 생각하며 읽는다.
- ② 글에 직접 드러나는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며 읽는다.
- ③ 글쓴이의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파악하며 읽는다
- ④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가치관과 자신의 가치관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⑤ 글쓴이가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방법의 효과를 생각하며 읽는다.

音显

(나)의 경험이 '나'에게 미친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
- ②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③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 ④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 낼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25 현재의 '나'가 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 ① 미안함
- ② 고마움
- ③ 서운함

- ④ 억울함
- ⑤ 안타까움

│ 서술형 〈

26 〈보기〉를 참고하여, ⑥의 뒤에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말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보기 ▶-

"그만하면 참 잘했다."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감아 주겠다."라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니 넌 절대 외롭지 않다."라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마라."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 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 조건 |

- 〈보기〉에서 적절한 말을 찾아 쓸 것.
- 친구들에게 하는 말투로 쓸 것.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마. 네놈의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내 차를 들이받았 단 말야, 이런 고급차를 말야, 이런 미련한 놈, 왜 눈은 째려. 째리긴, 그러니 내 차에 흠이 안 나고 배겼겠냐. 내 차는 인마. 여자들 손톱만 살짝 닿아도 생채기가 나 는 고급차야 인마. 알간?"

그러고는 거울처럼 티 하나 없이 번들대는 차체를 면면 히 훑어보더니 "그러면 그렇지." 하고 환성을 질렀다. 아마 생채기를 찾아낸 모양이다.

□ "도망가라, 어서어서 자전거를 번쩍 들고 도망가라. 도 맛가라 "

수남이는 자기편이 되어 준 이 많은 사람들을 도저히 배 반할 수 없었다. 이상한 용기가 솟았다. 수남이는 자전거 를 마치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옆구리에 끼고 질풍같이 달 렸다

정말이지 조금도 안 무거웠다. 타고 달릴 때보다 더 신 나게 달렸다. 달리면서 마치 오래 참았던 오줌을 시원스레 내깔기는 듯한 쾌감까지 느꼈다.

다 두고 난 주인 영감님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무릎을 치면서 통쾌해한다.

"잘했다. 잘했어. 맨날 촌놈인 줄만 알았더니 제법인데. 제법이야."

그러고는 가게에서 쓰는 드라이버니 펜치를 가지고 자전 거에 채운 자물쇠를 분해하기 시작한다. 엎드려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주인 영감님이 수남이의 눈에 흡사 도둑놈 두목 같아 보여 속으로 정이 떨어진다. 주인 영감님 얼굴이 누런 똥빛인 것조차 지금 깨달은 것 같아 속이 메스껍다.

- 라 혹시 내 피 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 닐까. 순간 수남이는 방바닥에서 송곳이라도 치솟은 듯이 후닥닥 일어서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좁은 방안을 헤맸다. 수남이의 눈앞에는 수갑을 차고, 순경들에게 끌려와 도둑 질 흉내를 그대로 내보이던 형의 얼굴이 환히 떠오른다. 그 리고 서울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도둑질만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아버지의 얼굴도 떠오른다.
- 소년은 아버지가 그리웠다.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 줄 어른이 그리웠다. 주인 영감님은 자기가 한 짓을 나무라 기는커녕 손해 안 난 것만 좋아서 "오늘 운 텄다."고 좋아 하지 않았던가.

수남이는 짐을 꾸렸다. 아아, 내일도 바람이 불었으면, 바람이 물결치는 보리밭을 보았으면.

EBS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남이의 얼굴은 누런 똥빛이 말끔 히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

– 박완서, 「자전거 도둑」

27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 ① 수남이는 일부러 고급차에 생채기를 냈다.
- ② 수남이는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훔쳐서 달아났다.
- ③ 수남이의 형은 도둑질을 한 죄로 순경에게 끌려갔다.
- ④ 수남이는 순경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가게를 떠났다.
- ⑤ 수남이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가게에서 일을 했다

I 서술형

 $oxed{28}$ 이 글에서 수남이가 주인 영감을 떠난 이유를 \langle 조건 \rangle 에 맞 게 쓰시오

✓ 조건 ▶

- (마)의 내용을 참고하여 쓸 것.
- '아버지와 달리'와 '~ 때문이다 '라는 말을 모두 넣어 쓸 것.

29 (나)에서 수남이가 자전거를 타지 않고 들고 도망을 간 이유 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조건 ▶──

- (다)의 내용을 참고하여 쓸 것.
- '~ 때문이다.' 형태의 한 문장으로 쓸 것.

<mark>3()</mark> 갈등을 중심으로 (마)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갈등의 원인이 제시된다.
- ② 갈등이 새롭게 발생한다.
- ③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다.
- ④ 갈등이 해소되고 주제가 부각된다.
- ⑤ 갈등이 고조되면서 긴장감을 조성한다.



EBS (O) O



·둘째마당·

문법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어휘 체계

02

국어의 품사와 특성

대단원 평가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어휘 체계

학습 목표

-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 •국어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이해하고 바 르게 활용할 수 있다.

〇 더 알아 두기

+ 언어의 기능

- 지시적 기능: 어떤 사물이나 개 념을 가리킴.
- 예 이것은 꽃이다.
- 정보적 기능: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함.
- 예 내일 비가 온다고 한다.
- 명령적 기능: 상대에게 특정 반응이나 행동을 요구함. 예이리로 오너라
- 친교적 기능: 상대와 친밀한 관 계를 형성함.
- 예 안녕하세요?
- 정서적 기능: 감정을 드러내어 표현함.
- 예 그 노래 참 좋아.

◆ 언어의 역사성

- 생성: 새로운 말이 생겨남. 예 텔레비전, 택시, 스마트폰, 수 능 등
- 변화: 소리나 뜻이 달라짐.
 예 '나무'의 표기와 발음 변화: 나
 모 → 나무
 '어리다'의 의미 변화: 어리석
 다 → 나이가 적다
- 소멸: 쓰이던 말이 사라짐.

예	옛날	오늘날
	온, 백(百)	백(百)

1 언어의 본질

(1) 언어의 개념

-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말 또는 글
- 말소리/글자(형식)와 의미(내용)가 결합되어 이루어짐.

(2) 언어의 본질

① 기호성: 언어는 내용과 형식이 결합하여 성립된 기호 체계이다.



- ② 자의성: 의미와 형식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고 임의적이다.
 - 예★: 한국어 '별', 영어 'star', 중국어 '星', 일본어 'ほし'
- ③ 사회성: 언어는 한 언어 사회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다. 예 '★'을 의미하는 '별'을 개인이 마음대로 '결'로 바꾸어 쓸 수 없다.
- ④ 역사성: 언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M '어여쁘다'라는 말은 '불쌍하다'에서 '예쁘다'로 그 의미가 달라졌다.
- ⑤ 창조성: 이미 익힌 언어를 통해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무한히 만들어 쓸 수 있다. 예 밥 먹자. → 과자 먹자. 빵 먹자. 과일 먹자. 등
- ⑥ 규칙성: 각 언어마다 지켜야 할 일정한 규칙이 있다.
 - 예 별을 많이 떴다. (×) 별이 많이 떴다. (○)



🕍 🕯 예로 개념 확인



(가) 어떤 사전에는 '얼짱'이라는 단어가 올라 있더라고. 10여 년 넘게 꾸준히 그리고 폭넓게 쓰였으니까 사전에 등록했겠지. '얼짱'이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몸짱'이라는 단어로 확장된 걸 보면 그 단어의 생명력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얼짱'을 국어사전에 등록한 걸 인정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우리가 쓰는 말 중에는 국적 불명의 단어들이 많고 지금도 새로 만들어지지만, 사실 문법을 파괴하며 만들어진 신조어들은 반짝 쓰였다가 ●대부분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 말도 자연처럼 스스로 정화 작용을 하는 거지. 몇 가지가 살아남았다는 건 그것이 생명을 가질 만큼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일 거야.

(나) 요즘 들어 많이 쓰는 ③'널널하다'는 사전에는 '널찍하다'는 뜻의 함경남도 방언으로 올라 있습니다. '얼척없다'는 '어처구니없다'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랍니다.

사투리는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공적인 자리나 문서에선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절대 좋고 나쁨으로 구분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화의 다양성을 잘 보여 주는 자산이지요. 지역 고유 의 정감이 뚝뚝 묻어나는 사투리를 들으면 괜스레 마음이 푸근해지는 기분, 저 혼자만 느끼는 걸까요?

2 국어의 어휘 체계

- (1) 어휘 체계 분류의 기준: 어휘의 기원(어원)
 - ① 고유어: 본디부터 우리말에 있었거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순우리말
 -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말이 많음.
 -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와 정서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임.
 - 감각이나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음. 예 어머니, 밥, 가다, 구수하다, 졸졸, 노르스름하다 등
 - ② 한자어: 중국의 한자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말
 - 주로 개념어, 추상어가 많음.
 - 고유어에 비해 좀 더 정확하고 분화된 의미를 가짐. 예 우정(友情), 시계(時計), 수리(修理), 수정(修整) 등
 - ③ 외래어: 외국어로부터 빌려 와서 우리말처럼 쓰는 말
 - 다른 나라의 문명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유입됨.
 -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우리말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음. 예 버스(bus), 피아노(piano), 커피(coffee), 세일(sale) 등

3 국어의 어휘 양상

- (1) 표준어: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쓰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규범으로 정한 말
- (2) 방언: 하나의 언어에서 지역이나 사회 계층에 따라 달라진 말
 - ① 지역 방언
 - 지역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말
 - 동일 지역 사람들에게 친밀감과 유대감을 주지만 타 지역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줌. 예 옥수수: 옥시기(강원도), 강내이(경상도), 옥수깽이(충청도) 등
 - ② 사회 방언
 - 연령, 성별, 계층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말
 - 같은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친밀감을 형성하지만 다른 집단과의 소통이 어려움. 예 낚다: 좋은 기사를 취재하다(기자 집단) / 넙대: 곰(심마니 집단)

더 알아 두기 (

♣ 사용 양상에 따른 어휘의 분류

- 은어: 특정 집단이 비밀 유지를 위해 만들어 쓰는 말
- 예 생선(청소년 은어: 생일 선물)심(심마니 은어: 산삼)
- 전문어: 전문 직업인들이 쓰는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말
- 예 어레스트(의학 전문어)
- 유행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말
- 예 혼밥족(혼자 밥을 해 먹고 지 내는 사람들)
- 관용어: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 하여 특별한 의미로 쓰이는 말 예 손이 크다(씀씀이가 크다)
- **새말:** 새롭게 생겨난 말 예 스몸비(스마트폰 좀비)

♣ 방언의 가치

- 방언은 표준어 제정의 기초가 됨.
- 방언은 국어의 여러 가지 특성을 보여 중
- 국어의 역사 연구에 도움이 됨.
- 같은 지역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함.
-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담 이냄.

- 사회적 약속의 과정: 어떤 말이 한 사회에서 통용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회 구성원끼리 그 말을 특정 의미를 지난 기호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사회적 약속이다. 이는 언어가 본질적으로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 ② 언어의 소멸: 언어는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소리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며, 사라지 기도 한다. 표현하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두 개 이상의 언어가 경쟁하다가 어느 하나가 경쟁에 밀려 소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언어의 역사성을 보여 준다.
- ③ 지역 방언: 우리나라의 지역 방언은 행정 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강원도 방언, 충청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제주도 방언'과 같이 크게 분류하기도 한다. 대체로 지역 방언은 '여수 방언, 강릉 방언, 공주 방언, 김해 방언' 등과 같이 작게 분류하기도 한다. 지역 방언은 거리가 멀수록 서로 큰 차이를 보이며, 거리가 가까운 곳일수록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EBS

언어의 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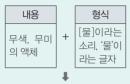


지문 연구

- •해제: 이 글은 언어의 본질을 기호성,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규칙성, 창조성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주제: 언어의 본질

∥ 내용 연구

'물'의 내용과 형식



'물'이라는 기호가 언어로 성립함.

▮ 구절 풀이

- 우리는 '무색, 무미의 액체' ~ 소통을 한다.: '물'이라는 언어가 그 내용이 '무색, 무미의 액체', 컵에 담겨 있는 '그것'이며,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이 '물'이라는 글자나 음성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 왜냐하면 일정한 ~ 있기 때문이다.: 어떤 말이나 글이 사회 내에서 의사소통의 도구인 언어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전체 또는 대부분이 그 언어의 의미와 형식의 결합에 동의해야 하다

▮ 낱말 풀이

- * 무미: 아무런 맛이 없음.
- * 기호: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이는 부호, 문자, 표 지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 필연적: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또는 그런 것.
- * 고정되어: 한번 정한 대로 변경되지 아니하여.
- * 유입: 문화, 지식, 사상 따위가 들어옴.

(가) 아침에 일어나서 시원하게 마시는 물 한 잔, 건강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 이때 '물'이라는 말을 살펴보자. '무색, *무미의 액체', 컵에 담겨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는 '물'이라는 글자리 의미(내용) '무색, 무미의 액체', '그것'을 '물'이라는 글자나 음성으로 드러내어 서로 소통을 한다.

여기서 <u>언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일정한 [®]형식, 즉 *기호로 표현하여 만들어진 것</u>임을 알 수 ^{언어의 기호성}
》다.

- (나) 그런데 그 형식은 언어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은 '물'이라고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water'라는 형식을 사용한다. 중국어에서는 '水[shuǐ]'라는 형식을 사용한다. 이로 보아 '물'을 반드시 '물'이라고만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물'이라는 형식 또는 기호는 우리말을 사용 물이라는 발음이나 글자가 유연히 물여진 것이. 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붙인 것이다.
- (다) 언어의 형식이 언어권마다 다르다고 하여 한 언어권 안에서 개인이 마음대로 형식을 바꾸어 쓸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물'을 '불'이라고 바꾸어 "물 한 잔 줘."라는 표현을 "불 한 잔 줘."라고 말한다면 올바른 소통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일정한 의미를 표현하는 형식은 사회 구성 원 전체의 약속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라) 그런데 언어에 대한 사회적 약속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가 '물'이라고 말하는 그 대상에 대하여 조선 시대에는 '믈'이라는 형식으로 표시했다. 즉조선 시대에는 '믈'이라는 형식으로 약속했다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물'이라는 서대에 따른 소리 및 표기 변화 형식을 쓰기로 약속하고, 그에 따라 언어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며, 새로운 문물의 *유입에 따른 새로운 말의 생성, 사회 변화에 따른 언어의 의미나 소리의 변화 등 ①다양한 양상 생성,변화, 4명으로 나타난다. ▶ 언어의 역사성

- (마) 한편, 언어는 실제 사용될 때 일정한 규칙에 따르는 성향이 있다. ⓒ '시원한 물 좀 마셔.'라는 언어 표현은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이 정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 표현을 '물 좀 시원한 마셔.'라고 바꾸어 쓰면 규칙에 어긋나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된다. 이러한 규칙은 언어를 쉽게 익히도록 하며,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규범이 된다. ▶ 언어의 규칙성
- (바) 하나의 단어나 문장의 규칙을 익힌 후에는 그 규칙을 이용하여 <u>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무한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u>. '시원한 물 좀 마셔.'라는 말을 통해 규칙을 익혔다면 '시원한 음료 좀 마셔.'라는 말을 만들어 쓸 수 있다. 또한 '차가운 물 좀 마셔.'와 같은 말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이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쓸 수 있다는 점은 동물의 언어와 달리 인간의 언어가 가지는 가장 큰 특성이다.

B 자의성, 사회성, 창조성

香兄

【 (가)∼(마)에서 설명하는 언어의 본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가): 언어의 자의성 ② (나): 언어의 사회성 ③ (다): 언어의 기호성 ④ (라): 언어의 창조성

⑤ (마): 언어의 규칙성

02 (나)~(바) 중 〈보기〉의 설명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 보기 ▶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언어는 공동체 내의 소통의 도구로서 사회적 합의이며 문화의 계승이나 발전의 밑바탕이 된다.

① (나) ② (다) ③ (라) ④ (마) ⑤ (바)

03 (나)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옷'. '의상'은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 ② 우리말의 '어머니'는 영어에서 'mother'로 쓰인다.
- ③ '옥수수'라는 말은 '강내이', '옥쑤시기' 등의 사투리로도 불린다
- ④ '사람의 복부', '물 위를 떠다니는 교통수단'을 의미할 때 우리는 모두 '베'라고 한다.
- ⑤ '다리'는 원래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랫부분'을 칭하는 말이었으나 그 형태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상다리, 지겟 다리'라고도 사용하고 있다.

○4 ③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늘날 우리가 '나무'라고 일컫는 대상을 조선 시대에는 '나모'라고 일컬었다.
- ② '어여쁘다'라는 말은 '가엾다'라는 뜻에서 '예쁘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 ③ 우리나라에서 '바밥바바'라는 소리는 특별한 의미를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가 아니다.
- ④ 서양 악기인 피아노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지칭하는 말인 '피아노'도 그대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고 있다.
- ⑤ '즈믄'이라는 말은 숫자 '1,000'을 나타내던 우리말이었는데, '천(千)'이라는 한자어가 쓰이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05 ⓒ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높임의 방법이 다르다.
- ② 주체를 설명하는 말이 가장 나중에 온다.
- ③ 시간에 따른 호응 관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 ④ 꾸미는 말은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위치한다.
- ⑤ 조사의 쓰임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I M술형

(라)와 (바)를 바탕으로 인간의 언어가 발전하게 된 원인과 결과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조건 ▶

- 긍정적인 결과가 드러나도록 쓸 것.
- 한 문장으로 쓸 것

100점 특강

♥언어의 본질

기호성	언어는 일정한 내용(의미)을 일정한 형식(기호)으로 담아낸다.
자의성	언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사회성	언어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으로 성립한다.
역사성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한다.
규칙성	각 언어마다 일정한 규칙이 있어 이 규칙에 따라 언어를 사용한다.
창조성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쓸 수 있다.

책상은 책상이다

페터 빅셀



- •해제: 이 글은 한 개인이 사물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어 부름으로써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가는 과정을 그려 낸 단편 소설이다.
- 주제: 개인이 만든 언어 사용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단절

॥ 내용 연구 '남자'의 삶의 모습

부름

- 평범한 생활 도구 사용 • 일상적인 행동 반복
- 색다른 삶을 원함. • 사물의 이름을 바꾸어

1

반복적인 일상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당연한 것들에 대한의문을 가짐.

▮ 구절 풀이

- 괘종시계는 언제나 똑딱거렸다.: 주인공인 남자의 일상이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었음을 표현한다.
- '무엇 때문에 ~ 안 된단 말인 가.': 언어의 형식과 내용 사 이의 임의적인 관계를 인식하 면서 같은 언어권의 사람들이 대상을 똑같이 부르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음을 표현한다.
- 그래서 그는 ~ 누워 있었다. '침대'라는 언어 형식을 '사진' 으로 바꾸어 사용한 문장으로,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 준다.

▮ 낱말 풀이

- * 개종시계: 시간마다 종이 울리 는 시계. 보통 추가 있으며 벽 에 걸어 둔다.
- * **일과**: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는 일정한 일.
- * **세상만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 그의 방에는 의자 둘, 책상 하나, 양탄자 한 장, 그리고 침대와 옷장이 하나씩 있다. 조그만 책상 위에는 *괘종시계가 하나 놓여 있다. 그 옆에는 오래된 신문과 사진첩이 놓여 있고 벽에는 거울과 사진이 한 장 걸려 있다.

이 늙은 남자는 <u>아침마다 산책을 했다. 오후에도 한 차례 산책을 했다. 이웃 사람들과 몇 마디 말</u>을 주고받고, 저녁때면 자기 책상에 앉아 있었다.

이러한 *일과는 결코 변하는 법이 없었다. 일요일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 무료한 일상의 반복 을 때면 괘종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괘종시계는 언제나 똑딱거렸다.

▶ 반복적이고 한 일상을 살고 있는 한 남자

(나) 그런데 보통 때와는 다른 날이 한번 있었다. 그날도 햇볕이 났고,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았고, 새들은 지저귀었고, 사람들은 친절했고, 아이들은 놀고 있었다. 보통 때와 달랐던 점은 이 남자에게 갑자기 *세상만사가 마음에 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u>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u> 생다른 상에 대한 열망 라고 그는 생각했다.

▶ 늙은 남자가 색다른 삶을 희망함.

- (다) '똑같은 의자, 침대, 사진. 나는 언제나 책상을 책상이라 말하고, 그림을 그림이라 말하고, 침대 한자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는 침대라 부르고, 의자는 의자라고 부른다. 도대체 왜 그렇게 불러야만 한단 말인가?'
- ③프랑스인들은 침대를 '리', 책상을 '타블'이라고 말하고, 그림은 '타블로', 의자는 '셰에즈'라 부른 안네의 자리성, 언어의 사회성 만. 그 말들을 사용하여 그들은 의견을 주고받는다. 중국인들도 그들끼리 역시 이런 식으로 의사소 통한다

•'무엇 때문에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단 말인가.'

▶ 남자가 대상을 똑같이 부르는 것에 대해 _____을/를 가짐.

(라) "이제는 달라지는 거다."

하고 그는 외쳤다. 그리고 지금부터 침대를 '사진'이라고 말하기로 했다.

"나는 피곤해, 사진 속으로 들어갈 테야"

라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그는 아침마다 오랫동안 사진 속에 누워 있었다. 그럼 의자는 무엇이라고 부를까,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는 의자를 '괘종시계'라고 부르기로 했다. 즉 그는 일어나면 옷을 입고 괘종시계 위에 앉아 책상 위에 팔을 짚었다. 그러나 ①책상은 이미 ②책상이라고 불리지 않았다.

책상은 이제 양탄자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 남자는 (⑧)을/를 떠나 옷을 입고 (⑤)의 (ⓒ) 위에 앉아 있게 된 셈이다.

▶ 남자가 사물의	을/를 바꾸어	부르기	시작함

B 3대 'RE B

0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우화적인 성격을 띤다.
- ②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③ 인물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일상적인 삶의 공간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02 (가)~(라)에서 알 수 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순수한 동심으로 상상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다.
- ② 일상적 삶의 반복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 ③ 주변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다.
- ④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 ⑤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

音显

(다)에서 '남자'가 가진 의문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 ① 사람들의 언어는 동물의 언어와 어떻게 다른 것일까?
- ② 우리가 쓰는 언어는 다른 나라의 언어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
- ③ 앞으로 언어를 발전시키려면 우리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 ④ 언어의 내용과 형식은 필연적인 관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일까?
- ⑤ 인간의 언어는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며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나?

04 ①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프랑스인들은 '침대', '책상', '그림', '의자'의 이름을 자주 바꾸어 부른다.
- ② '리', '타블', '타블로', '셰에즈'는 프랑스인들이 사물에 임의로 붙인 이름이다.
- ③ 프랑스어의 '리', '타블', '타블로', '셰에즈'는 언어의 내용 (의미)에 해당한다.
- ④ 프랑스에서는 '리', '타블', '타블로', '셰에즈'의 순서에 따라 언어를 구사한다.
- ⑤ 최근 프랑스에서는 '리', '타블', '타블로', '셰에즈'와 같은 말을 새로 만들어 쓰고 있다.

J M술형

05 ©과 ©의 차이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조건 ▶

• '형식(기호)'과 '내용(의미)'을 언급할 것.

06 @~ⓒ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a)

(b)

(c)

① 사진

양탄자

괘종시계

② 사진

괘종시계

양탄자

③ 양탄자 ○ Al=1=1 괘종시계

계 시계

④ 양탄자 시계 괘종시계

⑤ 괘종시계 양탄자 시계

100점 특강

፟፟፟፟ 남자의 태도

나는 언제나 ~ 그렇게 불러야만 한단 말인가?

프랑스 사람들의 언어인 "리(침대)', '타블(책상)', '타블로(그림)', '셰에즈(의 자)''를 반드시 '리', '타블', '타블로', '셰에즈'와 같은 기호(문자, 발음)로 표현해야 하는가? 다른 기호를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언어의 형식과 내용 사이에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프랑스인들은 침대를 \sim 부르면 안 된단 말인가.

프랑스인, 중국인이 각기 자신들이 정한 말을 사용하여 소통하는데, 한 번 정한 '침대'라는 기호를 '사진'이라는 기호로 바꾸어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왜 사람들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일까?

언어가 사회적 약속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함.

➡ 남자는 언어를 사회적 약속을 바탕으로 한 소통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언어의 형식과 내용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혼자만의 언어를 만들어 쓰고자 한다.

2 책상은 책상이다

▮ 내용 연구

사회적 언어와 남자의 언어

사회적 언어	남자의 언어		
침대	사진		
책상	양탄자		
의자	괘종시계		
신문	침대		
거울	의자		
괘종시계	사진첩		
옷장	신문		
양탄자	옷장		
 사진	책상		
사진첩	거울		
 남자	발		
발	아침		
 아침	남자		
울린다	세워 놓다		
언다	바라본다		
누워 있다	울린다		
서 있다	언다		
세워 놓다	펼친다		

▮ 구절 풀이

- 모든 사물의 이름이 바뀌었다: 남자가 모든 사물의 이름을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었다는 의미로, 그 언어는 사회적소통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할수 없는 것이다.
- 웃을 수밖에 ~ 없었던 것이다.: 남자는 자신만의 언어로 사람들이 쓰는 말을 해석했기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말일 수밖에 없었고, 남자는 사람들의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사람들이 이상하게 말한다고생각하여 웃을 수밖에 없었다.
- 이보다 훨씬 ~ 된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남자가 자기만 의 언어로 대화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남자의 말을 이 해하지 못하여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가) ⑤침대를, 그는 ⑥사진이라고 말했다.

책상을, 그는 양탄자라고 말했다.

의자를, 그는 괘종시계라고 말했다.

신문을, 그는 침대라고 말했다.

거울을, 그는 의자라고 말했다.

괘종시계를, 그는 사진첩이라고 말했다.

옷장을, 그는 신문이라고 말했다.

양탄자를, 그는 옷장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그는 책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진첩을, 그는 거울이라고 말했다.

▶ 남자가 여러 단어를 바꾸어 씀.

(나) 이 남자는 이것이 즐거웠다. 그는 온종일 연습을 했고, ② 새로운 단어들을 암기했다. *모든 사물의 이름이 바뀌었다. 그 자신은 남자가 아니라 발이었다. 발은 아침이었다. 그리고 아침은 남자였다.

> 남자가 새로운 단어를 통해 즐거움을 느낌.

(다) '울린다'라는 말은 '세워 놓다'로,

'언다'라는 말은 '바라본다'로.

'누워 있다'라는 말은 '울린다'로.

'서 있다'라는 말은 '언다'로.

'세워 놓다'라는 말은 '펼친다'로 바꿔 보자.

늘을 새로운 단어로 바꿈.

(라) 이 늙은 발은 오랫동안 사진 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아홉 시에 사진첩은 세워 놓았다. 이 발은 얼어 올라왔고 아침이 바라보지 않도록 이 발은 옷장 위에 자신을 펼쳤다.

▶ 남자의 언어를 사용한 표현

(마) 이 남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웃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누 자신의 언어로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군가

"당신은 내일도 축구 경기를 보러 가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듣거나, 또는 누군가

"벌써 두 달 동안이나 계속 비가 오는군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거나, 또는 누군가

"미국에 저의 아저씨가 한 분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는 웃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u>이 모든 말을</u>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남자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함.

(바) 회색 외투를 걸친 이 늙은 남자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보다 훨씬 더 나쁘게 된 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④ 그는 침묵했고, 자기 자신하고만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에게 인사조차 하지 어로 소통하지 못하면서 남자가 서회로부터 소의됨.
않게 되어 버렸다.

8 동사, 이해, 소외

07 이 글에서 작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언어 발달 과정
- ② 나라별 단어의 수와 분류
- ③ 언어를 통한 소통의 문제
- ④ 언어 변화의 원인과 결과
- ⑤ 명사와 동사의 쓰임의 차이

65

8 (가)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언어의 본질은?

- ① 언어를 구성하는 내용과 형식은 필연적인 이유가 없이 자의적으로 결합한다.
- ②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일정한 약속 체계라 할 수 있다.
- ③ 언어에도 스포츠와 같은 규칙이 있어 규칙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소통하기 어렵다.
- ④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말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아 인간의 언어는 무한히 창조될 수 있는 속성을 지녔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소리나 뜻이 달라지기도 하며 있던 말이 사라지기도 한다.

9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임의적
- ② 수동적
- ③ 이기적

- ④ 독창적
- ⑤ 비유적

1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자가 사회와의 소통에서 소외되었다는 것을 표현한다.
- ② 남자가 마음대로 바꾼 말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들이다.
- ③ 다른 사람과 남자가 사용하는 언어는 더 이상 같은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 ④ 다른 사람과 남자는 하나의 내용에 대하여 서로 다른 형식을 사용한 것이다.
- ⑤ 남자가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서 예의 없는 언어를 사용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1 ③과 ⓒ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bigcirc

- (L)
- ① 일상적 언어 공식적 언어
- ② 사회적 언어 개인적 언어
- ③ 남성적 언어 여성적 언어
- ④ 유아적 언어 성인의 언어
- ⑤ 지역적 언어 공용의 언어

| 서술형

12 (가)~(다)를 바탕으로 하여, 〈조건〉에 맞게 (라)를 일반적인 언어 표현으로 바꾸어 쓰시오.

~ 조건 ▶

•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표현하되, 반복되는 표현은 생략할 것.

100점 특강

생남자의 비극적 상황

남자

다른 사람들

EBS

자기만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함.

Ţ

자신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남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함. 남자가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결국 사회 로부터 소외되어 외톨이로 살아감.

→ 이 이야기에서 남자의 행위는 언어의 사회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립한 무언의 약속을 바탕에 두고 있다. 남자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깨고 마음대로 자기만의 언어를 만들었으며, 결국 그 언어는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결국 남자는 그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게 되었다.